운영 체제 변화없는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한계

12월 7일 제주아트센터 5개 예술단 만나는 무대

실질적 협업 성사되려면 통합 관리 방식 바뀌어야 대표 공연물도 모색 가능

5개 제주도립예술단이 올해 연말 합동공연에 나선다. 30년 안팎의 역사를 지닌 도립예술단 전체가 합동공연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12월 7일 오후 5시 제주아트센터로 일정이 잡혔다.

제주도의회 요구로 제주도가 지휘자, 안무자 모임을 주재하는 등 '컨트롤타워'가 되어 추진하는 이번 합동공연은 일단 '5개 예술단이 한자리에서 만난다'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준비 기간이 짧아 협업보다는 예술단별로 음악과 춤 등 기량을 펼치는 무대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립 무용단,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합창단, 서귀포관악단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시, 서귀포시가 각각 설립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관리 주체가 종전대로 유지되면서 그동안 5개 예술단 합동공연이 성사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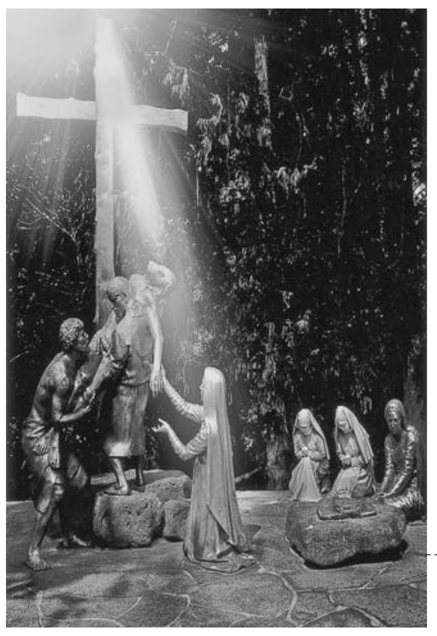
이와 달리 다른 지역 공립예술단은 앞서 합동공연이 추진됐고 근래엔 협업을 통해 창작 작품 개발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인천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이 지난 3월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을 제작, 공연했다. 전주시립예술단(교향악단, 국악단, 극단, 합창단)은 3·1운동 100주년과 김구 선생 서거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 창작 음악극 '백범 김구'를 선보였다. 대구시립예술단(극단, 국악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은 방짜유기를 소재로 창작 뮤지컬 '깨어나는 전설 바데기'를 공동 제작해 지난달 초연했다.

공연계 일각에서는 제주지역 도립예술단이 이들처럼 창작공연 등 실질적 협업에 나서려면 근본적으로 운영 체제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도문화예술진흥원과 두 행정시가 각기 예술단을 끌어갈 경우 합동공연을 내실있게 이끄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도가 '제주 대표 공연 콘텐츠'를 모색하고 있다면 통합 관리 체제를 중·장기 과제로 삼고 전문 공연예술인들로 구성된 5개 예술단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합동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정례화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작품 하나를 정해 5개 예술단이 함께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작 처음 제주에



특선에 선정된 제주 윤석순의 '성모 마리아여'.

제주문화예술진흥원 초청 대상 등 입상작 326점 전시 특·입선 제주 수상작 섹션

국내에서 손꼽히는 사진 공모전인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상작이 제주로 향한다.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1~3전시실 전관에서 '2019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작 초청전'이 열린다.

대한민국사진대전은 한국 사진예술의 발전을 위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주관으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입상작 제주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10월 2~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 예정인 '대한민국 사진축전'에 앞서 제주에 먼저 내걸린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대상을 받은 윤영식의 '승무', 우수상 박영철의 '죽공예'와 한철규의 '제3세계' 등 제37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작 326점이 나온다.

특선과 입선을 수상한 제주지역 사진가들의 작품도 별도 섹션으로 볼 수 있다. 특선은 김종현의 '눈 오는 날', 윤석순의 '성모 마리아여', 조영희의 '비상의 날개를 펴라' 등 3점이 뽑혔다. 입선은 강만보의 '벌치는 사람', 박해섭의 '일터로', 원정희의 '바다로', 이봉기의 '서핑', 이성길의 '어부일기', 장책호의 '해녀' 등 6점이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6시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이루어진다. 문의 064)710-7633. 진선희기자

詩(시)로 읽는 4·3 (24)

곤을동

현택훈

예부터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았지
늘 물이 고여 있는 땅이라서 곤을동
안드렁물 용천수는 말없이 흐르는데
사람들은 모두 별도천 따라 흘러가 버렸네
별도봉 아래 산과 바다가 만나 모여 살던 사람들
원담에 붉은 핏물 그득한 그날 이후
이제 슬픈 옛날이 되었네
말방이집 있던 자리에는 말발자국 보일 것도 같은데
억새밭 흔드는 바람소리만 세월 속을 흘러 들려오네
귀 기울이면 들릴 것만 같은 소리
원담 너머 테우에서 멜 후리는 소리
어허어야 뒤야로다
풀숲을 헤치면서 아이들 뛰어나올 것만 같은데
산 속에 숨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지
허물어진 돌담을 다시 쌓으면 돌아올까
송악은 여전히 푸르게 당집이 있던 곳으로 손을 뻗는데
목마른 계절은 바뀔 줄 모르고
이제 그 물마저 마르려고 하네
저녁밥 안칠 한 바가지 물은 어디에
까마귀만 후렴 없는 선소리를 메기고 날아가네
늘 물이 고여 있는 땅이라서 곤을동
예부터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았지

곤을동(坤乙洞)은 '항상 물이 고여 있는 땅'이라는 뜻이다. 화북천 지류를 중심으로 밧곤을, 가운데곤을, 안곤을로 나눠진다. 고려 충렬왕 26년(서기 1300년)에 별도현(別刀縣)에 속한 기록이 있듯이 설촌된 지 700년이 넘는 마을이다. 주민들은 농사를 주로 했으며, 어업도 겸하면서 43호가 소박하고 평화롭게 살았다.

어느 날 갑자기 평화로운 이 마을에 비극이 찾아왔다. 1949년 1월 4일 오후 3~4시께 국방경비대 제2연대 1개 소대가 마을을 포위했다. 군인들은 안곤을과 가운데곤을의 집집마다 불을 붙이며 주민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젊은 사람 10여명을 안곤을 바로 앞 바닷가로 끌고 가 총살했다. 또 살아남은 젊은 남자 10여명을 5일 화북동 동쪽 바닷가인 연대 밑 '모살불'(현재 화북등대) 해안에서 총살했다. 이후 군인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밧곤을 28가구도 불에 태워 없애버렸다. 이로써 67호의 적지 않던 마을이 하루 사이에 한꺼번에 사라졌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곤을 마을 사람들은 인근 '새곤을'(현재 화북1동 4047번지 일대)로 이주해 움막 등을 지어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문화가 쪽지

설문대 문화동아리 연합전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가 4일부터 '모드락'이란 이름으로 문화동아리 연합전을 열고 있다.

연합전에는 드로잉, 민화, 보태니컬아트, 수채화, 아크릴화, 크레용화, 캘리그라피 등 시각예술 분야 7개 동아리의 작품이 모였다. 동아리 회원들은 작품 활동에 자부심을 갖는 기회로, 관람객들은 도전을 꿈꾸는 계기로 기획됐다. 설문대 문화동아리는 시각예술 분야 8개 팀, 공연예술 분야 12개 팀 328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시는 이달 27일까지. 문의 064)710-4243.

산지천갤러리 업사이클전

제주도가 이달 8일까지 제주시 산지천갤러리에서 '2019 제주 업사이클 페스티벌-얼랑핀칙 쓰레기전'을 연다.

업사이클(upcycle, 새활용)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로 버려지거나 쓸모가 없어진 물건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실용성 등을 가미해 더 나은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말한다. 페스티벌 기간에는 국내외 업사이클 작가들의 작품전, 체험 프로그램, 업사이클 제품 판매 등이 이루어진다. 문의 064)800-9141.

탐라합창제 참가팀 모집

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도지회가 이달 9일까지 제29회 탐라합창제 참가팀을 모집하고 있다.

1990년 시작된 탐라합창제는 도내 중창단과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제주소재 창작곡 발굴 등에 기여해왔다. 올해는 10월 11~12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첫날은 학생부, 둘째날은 일반부 경연이 잇따른다.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jejuchorus)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thqhfnwkd@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10-7744-6702.

시밀레색소폰앙상블 공연

색소폰 동호인들로 구성된 시밀레색소폰앙상블(단장 고수형)이 이달 7일 오후 7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 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공연에서는 비틀즈의 명곡을 시작으로 앨토색소폰 주자 고미희가 협연하는 '페퀴나 차르다', '아메리칸 그라피티 제3번', '유년시절의 기행' 등을 들려준다. 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과 함께하는 무대도 꾸민다. 시밀레색소폰앙상블은 이정석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정기연주회, 가족음악회를 열어왔고 제주해변축제, 제주관악제 등에 참여했다.

세계유산센터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길림)가 세계자연유산 등재 12주년을 기념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아시아작가 교류전인 제3회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전을 열고 있다.

지난 4일 막이 오른 이번 전시는 '무위(無爲)-자연스럽게'란 주제를 내걸었다. 참여 작가는 한국 7명, 중국 6명, 인도 2명 등 15명으로 회화, 조각, 사진 등 20여점을 내놓았다.

한국에서는 팝아트의 대표주자 김동유 등이 참여했고 제주 고광표·이승수의 작품도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현대미술의 냉소적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저우춘야, 사진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왕칭송,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입주 작가인 펑정지에 등이 출품했다. 인간과 자연의 화해와 공존을 표현하는 자가나스 판다 등 인도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인다.

(사)아시아예술경영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전시로 11월 4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10-6657. 진선희기자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